

2021-03

## 금융시장 브리프

2021. 03. 03.

-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국채금리 상승으로 2월 중 위험자산가격의 변동성이 확대**
  -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 바이든 행정부의 1.9조 달러 규모 부양책 추진, 백신 보급 확산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자극(2.16일 미국 기대인플레이션 2.24%, 6년 6개월 만에 최고치)
  - 그러나,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등에 비추어 보면 인플레이션이 통화정책의 변화를 초래하여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기초적으로 변경시킬 만한 이슈는 아닌 것으로 판단
    - \* 파월 의장은 의회 청문회(2.23~24일)에서 고용 부진을 감안하면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에 도달하기까지 3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고 발언
- **미래 인플레이션 기대가 2월 중 상당부분 선반영된 것으로 보여 3~4월에는 국내외 국채금리가 소폭 상승에 그치고 주요국 통화와 주가는 완만한 강세기조를 나타낼 전망**
  - 한은과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한국 0.50%, 미국 0.25%)
  - 국고채 금리는 경기 회복과 물가 상승 기대, 추경 편성 등 확장적 재정운용(국채수급 부담)을 반영하여 완만한 오름세(국고 3년물 2월말 1.02% → 3월말 1.04% → 4월말 1.06%)
    - 선진국 국채금리도 경기 회복과 인플레이션 기대, 확장적 재정운용에 따른 발행물량 증가로 소폭 상승(미 국채 10년물 2월말 1.41% → 3월말 1.45% → 4월말 1.49%)
  - 원화는 국내 수출경기 회복세, 경상수지 흑자 기조, 위안화 절상과의 동반 흐름으로 강세압력이 다소 우세(원/달러 2월말 1,124원 → 3월말 1,120원 → 4월말 1,115원)
    - 주요국 통화는 위험자산에 대한 매수 재개, 경제 정상화 기대로 달러화 대비 소폭 강세
  - 한·미 주가지수는 기업실적(특히 반도체 등 IT 업종) 개선,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배경으로 완만한 오름세 지속(KOSPI 2월말 3,013 → 3월말 3,050 → 4월말 3,100)

작성자: 경제·글로벌연구실 허문중 연구위원(02-2173-0568)  
이다은 연구원(02-2173-0578), 박수빈 조사원(02-2173-0556)  
책임자: 경제·글로벌연구실 권영선 실장(02-2173-0569)

## I. 3~4월 금융시장지표 전망

### 1. 금리

#### 가. 국내금리

##### ■ 한국은행은 4.15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0.50%)에서 동결할 전망

- 수출 개선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고용·소비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
  - \* 이주열 총재는 2.25일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수출 호조 등으로 국내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코로나 전개상황에 따라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앞으로 국내 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해나갈 것”이라고 언급
  - \* 1월 국내 취업자 수는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지난해 1월 고용 개선(56.8만명 증가)의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98.2만명 감소

##### ■ 국고채 3년물 금리 소폭 상승 전망: 2월말 1.02% → 3월말 1.04% → 4월말 1.06%

- 경기 회복과 물가 상승 기대, 추경 편성 등 확장적 재정운용에 따른 국채수급 부담으로 국고채 3년물 금리의 상승압력이 점증
  - 다만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국고채 단순매입, 사전매입 공표 등), 기관·외국인의 투자 수요로 금리 상승폭이 제한
    - \* 정부는 2.17일 현재 총 7,500만명분(1억5,200만회분)의 백신 공급물량을 확보한 상태이며, 2.26일 접종을 시작으로 9월말까지 전국민 70%를 대상으로 1차 접종을 마친 후 11월에는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
    - \* 정부는 19.5조원(15조원 추경, 4.5조원 본예산 활용)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4차 재난지원금)’을 3월중 국회 심의를 거쳐 이달 하순 지급을 개시할 계획
    - \* 한국은행은 국채발행 확대 부담과 시장금리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상반기 중 5~7조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매입을 실시한다고 발표(2.26일)

##### ■ 국고채 10년물 금리 소폭 상승 전망: 2월말 1.96% → 3월말 1.98% → 4월말 2.00%

- 경기 개선과 인플레이션 기대, 추경 편성에 따른 국채 발행물량 증가를 반영하여 장기금리의 상승압력이 더 클 것으로 예측

- 다만 장단기(10년물-3년물) 금리차가 10년래 최대(2.26일 94bp)로 확대됨에 따라 추가 금리 상승폭을 제약할 가능성
  - \* 10년물-3년물 금리 스프레드(bp): 2011.1.18일 101 → 2019.8.28일 6(단기 저점) → 2021.2.26일 94(10년래 최대)

**국내금리 전망**

항목	단위	2020	2021(F)	2021.1월	2월	3월(F)	4월(F)
기준금리	기말, %	0.50	0.50	0.50	0.50	0.50	0.50
국고채 3년	기말, %	0.97	1.10	0.97	1.02	1.04	1.06
국고채 10년	기말, %	1.72	1.88	1.77	1.96	1.98	2.00

주: 2021년말 전망치는 '우리금융그룹 거시경제·금융시장지표 전망'(2021.2.19일) 기준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2월 전망에 대한 평가(A등급<sup>1)</sup>)**

- 2월말 국고채 3년 금리는 1.02%로 전망치(1.00%)를 소폭 상회
- 백신 접종 가속화, 인플레이션 기대 확산으로 미국 등 주요국 국채금리가 급등함에 따라 국고채 금리에 상승압력이 가중

**나. 해외금리**

**■ 미 연준은 3.16~17일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0.25% 상한)할 전망**

- 연준은 평균물가목표제(Average Inflation Targeting) 도입을 통해 고용과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완전 고용, 물가상승률 2%)으로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 제로금리 정책을 장기간 유지할 방침임을 시사
  - \* 파월 연준 의장이 의회 청문회(2.23~24일)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에 도달하기까지 3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최소 2023년까지 초저금리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는 연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

**■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소폭 상승 전망: 2월말 1.41% → 3월말 1.45% → 4월말 1.49%**

- 최근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경기 회복 지연, 연준의 국채 매입 지속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 본격화,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국채 발행물량 증

1) 대표 금리지표(국고채 3년)의 실제치와 전망치 간 격차가 ±1bp 이하는 S등급, ±3bp 이하는 A등급, ±5bp 이하는 B등급, ±5bp 초과는 C등급으로 평가

가), 인플레이션 기대로 국채금리 상승압력이 점증

- \* 미국내 백신 접종은 1월 말 일평균 130만명에서 2월 중순 170만명을 넘어서 가속화되고 있으며, CDC(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올해 여름까지 대다수의 미국인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것이라고 전망(2.14일)
- \*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예: WTI 배럴당 60달러 돌파, 구리 가격이 2011년 이후 처음으로 톤당 9천 달러 상회)하면서 공급측 요인에 의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
- \* 미국 기대인플레이션율(BEI, %): 2014.8.11일 2.25 → 2020.3.19일 0.50(저점) → 2021.2.16일 2.24(6년 6개월만에 최고치) → 2.25일 2.14

■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소폭 상승 전망: 2월말 -0.26% → 3월말 -0.23% → 4월말 -0.20%

-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 ECB의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에도 불구하고 역내 백신 공급 확대, EU 경제회복기금 집행, 제조업 중심의 경기 회복으로 국채금리는 완만하게 상승(마이너스 금리폭 축소)
  - \* 라가르드 ECB 총재는 최근 인플레이션 급등에도 불구하고 ECB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여 자금조달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발언(2.9일)
  - \* 2월 독일 제조업 PMI는 대내외 수요 회복 기대를 반영하여 60.6으로 상승(1월 57.1)

■ 영국 국채 10년물 금리 소폭 상승 전망: 2월말 0.82% → 3월말 0.86% → 4월말 0.90%

- 변이 바이러스 성행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빠른 백신 접종과 봉쇄조치 완화에 따른 경기 반등 기대, 영란은행(BOE)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 가능성 약화로 국채금리는 완만한 상승흐름을 지속
  - \* 2.28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영국 전체 인구의 약 30%가 코로나 백신을 맞았으며, 7월말까지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1차 접종을 마칠 계획이라고 발표
  - \* 영란은행(BOE)이 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은행들이 마이너스 금리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지만 정책 시행이 임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발표함에 따라 시장은 BOE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평가

■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 소폭 상승 전망: 2월말 0.15% → 3월말 0.17% → 4월말 0.19%

-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 긴급사태 조기 해제, 일본은행(BOJ)의 수익률곡선관리 정책(10년물 금리를 0% 내외에서 유

지) 완화 가능성으로 국채금리는 상승압력이 다소 우세

- \* 일본 정부는 1월에 긴급사태가 발효된 10개 지역 중 수도권을 제외한 6개 지역에 대해 기존 시한인 3.7일보다 이른 2.28일에 긴급사태를 조기 해제한다고 발표(2.26일)
- \* 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 오름세로 일본 10년물 국채금리가 관리 수준을 크게 벗어남에 따라(2.26일 0.153%) BOJ가 3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긴급 국채매입에 나서거나 장기금리 목표치를 상향조정할 것으로 관측

### 해외금리 전망

항목	단위	2020	2021(F)	2021.1월	2월	3월(F)	4월(F)
미국 기준금리	기말, %	0.25	0.25	0.25	0.25	0.25	0.25
미국 국채 10년물	기말, %	0.91	1.35	1.07	1.41	1.45	1.49
독일 국채 10년물	기말, %	-0.57	-0.40	-0.52	-0.26	-0.23	-0.20
영국 국채 10년물	기말, %	0.20	0.55	0.33	0.82	0.86	0.90
일본 국채 10년물	기말, %	0.03	0.08	0.05	0.15	0.17	0.19

주: 2021년말 전망치는 '우리금융그룹 거시경제·금융시장지표 전망'(2021.2.19일) 기준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2. 환율

### ■ 원/달러 환율 하락(원화 강세) 전망: 2월말 1,124 → 3월말 1,120 → 4월말 1,115

- 최근 위험자산가격 조정으로 원화가 일시적으로 약세(달러화 강세)를 보였으나 백신 보급에 따른 글로벌 경기 개선 기대, 국내 수출 호조, 경상수지 흑자 기조로 향후 원화는 강세압력이 다소 우세
  - \* 통관수출(전년동월대비, %): 2020.12월 12.4 → 2021.1월 11.4 → 2월 9.5
  - \* 무역수지 흑자(억달러): 2020.12월 66.9 → 2021.1월 37.6 → 2월 27.1

### ■ 위안/달러 환율 소폭 하락(위안화 강세) 전망: 2월말 6.47 → 3월말 6.45 → 4월말 6.43

- 중국의 상대적으로 견조한 경기 개선흐름, 외국인의 채권·주식 투자자금 유입으로 위안화는 강세압력이 커지겠으나, 미·중 갈등 재현 우려, 중국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이 절상폭을 제한
  - \* 1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는 52.0으로 9개월 연속 확장국면 지속
  - \* 인민은행은 2020.4분기 통화정책 집행보고서에서 통화정책을 급격하게 선회하지 않을 것이며 환율 안정을 정책목표로 염두하고 있다고 언급(2.9일)

■ **엔/달러 환율 소폭 하락(엔화 강세) 전망: 2월말 106.6 → 3월말 106.0 → 4월말 105.5**

- 미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대내외 금리차 확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 긴급 사태 조기 해제, 수출경기 회복, 외국인의 일본 주식 투자자금 유입 증가 등에 힘입어 엔화는 강세압력이 소폭 우세
  - \* 일본 코로나 일일 신규 확진자(7일 이동평균, 명): 1.31일 3,858 → 2.28일 1,033
  - \* 일본 통관수출(전년동월대비, %): 2020.11월 -4.2 → 12월 2.0 → 2021.1월 6.4

■ **달러/유로 환율 소폭 상승(유로화 강세) 전망: 2월말 1.208 → 3월말 1.210 → 4월말 1.213**

- 최근 역내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경기 둔화, ECB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백신 보급 확대와 EU 경제부흥기금 집행에 의한 유로지역 경제 정상화 기대로 유로화는 소폭 강세
  - \* ECB는 1.21일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1.85조유로 규모의 팬데믹긴급 매입프로그램(PEPP) 등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
  - \* EU 경제회복기금은 총 7,500억유로로 EU 전체 GDP의 약 6%에 달하는 규모

**주요국 환율 전망**

항목	단위	2020	2021(F)	2021.1월	2월	3월(F)	4월(F)
원/달러	기말, 원	1,087	1,080	1,119	1,124	1,120	1,115
위안/달러	기말, 위안	6.53	6.40	6.43	6.47	6.45	6.43
엔/달러	기말, 엔	103.0	104.5	104.7	106.6	106.0	105.5
달러/유로	기말, 달러	1.228	1.210	1.214	1.208	1.210	1.213

주: 2021년말 전망치는 '우리금융그룹 거시경제·금융시장지표 전망'(2021.2.19일) 기준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2월 전망에 대한 평가(A등급)<sup>2)</sup>

- 2월말 원/달러 환율은 1,124원으로 전망치(1,110원)를 다소 상회
- 수출 호조에 따른 무역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미국 등 주요국의 채권 금리 상승에 의한 위험자산가격 조정으로 원화가 약세(달러 강세)를 보임

2) 대표 환율지표(원/달러)의 실제치와 전망치 간 격차가 ±1% 이하는 S등급, ±3% 이하는 A등급, ±5% 이하는 B등급, ±5% 초과는 C등급으로 평가

### 3. 추가

#### ■ KOSPI 소폭 상승 전망: 2월말 3,013 → 3월말 3,050 → 4월말 3,100

- 국내 수출·투자 회복세,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업종의 실적 개선, 추가 재정 지원 논의, 풍부한 시중 유동성에 힘입어 KOSPI 지수에 상승압력이 우세하나 밸류에이션 부담, 채권 금리 오름세로 추가 상승폭은 제한적
  - \* 2월 수출은 반도체(+13.2%), 자동차(+47.0%), 바이오헬스(+62.5%) 등이 호조를 나타내며 전년동기대비 9.5% 증가(일평균 기준 +26.4%)
  - \* 코스피 개인 순매수(조원): 2020.12월 +3.7 → 2021.1월 +22.3 → 2월 +8.4
  - \* 12개월 선행 PER(배): 2020.12.30일 13.5 → 2021.1.14일 14.6 → 2.26일 13.3
- 국내 은행주는 경기 개선 기대와 시중금리 오름세에도 불구하고, 대출과 배당 관련 규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재연장 등 정책요인으로 KOSPI 대비 제한적인 상승을 예상
  - \*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배당축소(배당성향 20% 이내로 제한) 권고와 관련하여 6개월 후 은행들의 자본적정성을 보고 정상화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힘(2.17일)
  - \* 가계부채 증가세가 높은 수준을 유지(2020.4분기 가계신용 잔액 1,726조원, 전년동기 대비 +7.9%)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3월에 차주별 DSR 적용, 거액 신용대출 관리강화(원금분할상환) 등을 포함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예정

#### ■ KOSDAQ 소폭 상승 전망: 2월말 914 → 3월말 925 → 4월말 940

- 기업실적 개선, 한국형 뉴딜정책 관련 산업 수혜, 풍부한 시중 유동성으로 KOSDAQ 지수에 상승압력이 우세하나 밸류에이션 부담, 채권 금리 오름세, 공모도 부분재개로 추가 상승폭은 제한적
  - \* 코스닥 개인 순매수(조원): 2020.12월 +0.3 → 2021.1월 +3.5 → 2월 +1.1
  - \* 금융위원회는 5.3일부터 코스피200,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을 대상으로 공모도를 부분 재개하기로 의결(2.3일)

#### ■ S&P500 소폭 상승 전망: 2월말 3,811 → 3월말 3,860 → 4월말 3,920

- 백신 접종 가속화에 따른 경제활동 정상화,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로 S&P500 지수에 상승압력이 우세하나 밸류에이션 부담, 인플레이션 기대와 채권 금리 오름세가 지수 상승폭을 제한
  - \* 민주당은 1.9조달러 경기부양책을 기존 실업급여 지원이 만료되는 3.14일까지 확정지

을 계획이며, 인프라 법안이 포함된 3조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3월에 발표할 것으로 관측

- \* Economist는 2.19일자 기사(How higher inflation could disrupt global economic policy)에서 백신 보급으로 미국의 경제활동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1.9조달러 규모 부양책이 경기를 과열시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고 평가

### 국내 주가 전망

항목	단위	2020	2021(F)	2021.1월	2월	3월(F)	4월(F)
KOSPI	기말	2,873	3,250	2,976	3,013	3,050	3,100
은행업 주가지수	기말	1,557	1,650	1,459	1,593	1,610	1,630
KOSDAQ	기말	968	1,050	929	914	925	940
S&P500	기말	3,756	4,000	3,714	3,811	3,860	3,920

주: 2021년말 전망치는 '우리금융그룹 거시경제·금융시장지표 전망'(2021.01.22일) 기준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 2월 전망에 대한 평가(A등급)<sup>3)</sup>

- 2월말 KOSPI는 3,013으로 전망치(3,100)를 소폭 하회
- 단기급등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 인플레이션 기대에 의한 채권 금리 상승으로 국내외 주가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데 주로 기인

3) 대표 주가지수(KOSPI)의 실제치와 전망치 간 격차가 ±1% 이하는 S등급, ±3% 이하는 A등급, ±5% 이하는 B등급, ±5% 초과는 C등급으로 평가



**붙임1**

**2월중 국내금리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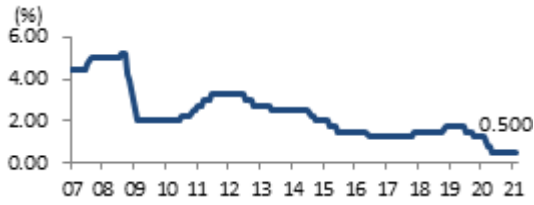
- 한국은행은 2.25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0.50%)에서 동결
  - \* 이주열 총재는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수출 호조 등으로 국내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코로나 전개상황에 따라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앞으로 국내 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해나갈 것”이라고 언급
-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월말 대비 5bp 상승(0.97% → 1.02%)
  - 국고채 3년물 금리는 국내외 코로나 재확산과 경기 회복속도 둔화 영향으로 2월중 1% 내외(0.978~1.001%)에서 등락을 거듭했으나, 월 후반 인플레이션 기대가 확산됨에 따라 2.26일 1.020%로 상승 마감
-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19bp 상승(1.77% → 1.96%)
  -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장단기 스프레드 확대 부담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경기 회복과 인플레이션 기대, 추경 편성 등 확장적 재정운용(국채수급 부담)으로 2.26일 1.960%까지 급등
    - \* 10년물-3년물 금리 스프레드(bp): 2011.1.18일 101 → 2019.8.28일 6(단기 저점)  
→ 2021.2.26일 94(10년래 최대)

**국내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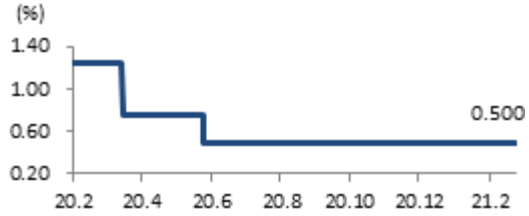
	단위	연간			분기				월간				
		2018	2019	2020	20.1/4	2/4	3/4	4/4	20.11월	12월	21.1월	2월	
한국	기준금리(기말)	%	1.750	1.250	0.500	0.750	0.500	0.500	0.500	0.500	0.500	0.500	0.500
	국고채(3년, 기말)	%	1.823	1.355	0.970	1.070	0.845	0.842	0.970	0.980	0.970	0.972	1.020
	국고채(10년, 기말)	%	1.956	1.672	1.722	1.552	1.385	1.427	1.722	1.662	1.722	1.765	1.960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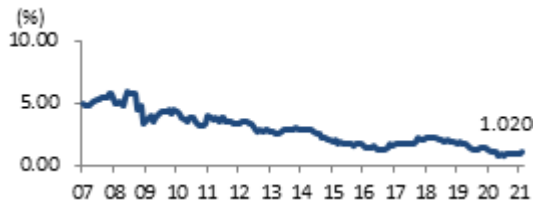
한은 기준금리(월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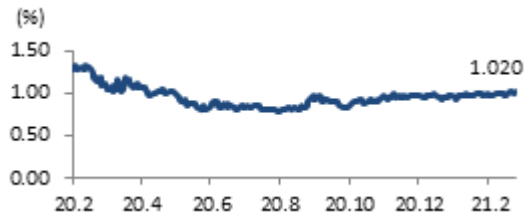
한은 기준금리(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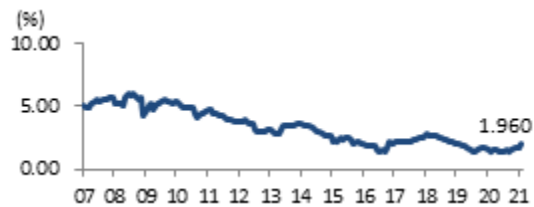
국고채 3년물(월간)



국고채 3년물(일간)



국고채 10년물(월간)



국고채 10년물(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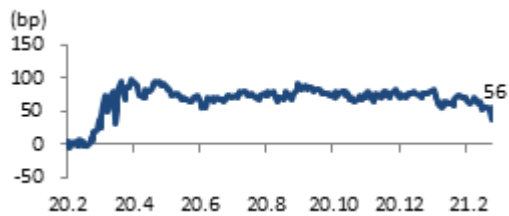
기준금리와 국고채 금리(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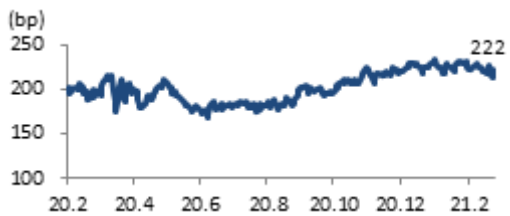
장단기 금리차(국고채 10년-3년, 일간)



한국·미국 국채 10년물 금리차(일간)



한국·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차(일간)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붙임2 | 2월중 해외금리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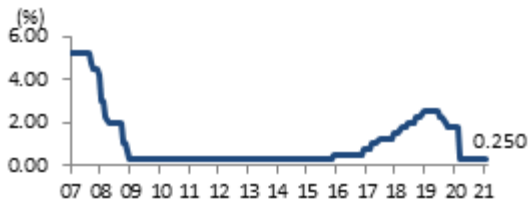
- 미 연준은 1.26~27일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0.25% 상한)를 동결(만장일치)하고, 채권매입규모(국채 800억 달러 이상, 정부기관 MBS 400억 달러 이상)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겠다고 발표
-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전월말 대비 34bp 상승(1월말 1.07% → 2월말 1.41%)
  - 대규모 경기 부양책, 백신접종 확대에 힘입은 경기 개선세 강화, 인플레이션 기대로 2.24일 장중 국채금리는 1.43%로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 \* 9,000억 달러 코로나 부양책에 힘입어 1월 소매판매가 전월대비 5.3% 증가하였으며, 2월 뉴욕주 제조업지수도 12.1로 5개월 만에 반등
-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는 26bp 상승(-0.52% → -0.26%)
  - 백신 접종 확대, 제조업 중심의 경기 회복 기대, 미국 등의 주요국의 금리 오름세에 영향을 받으며 국채금리에 상승압력이 확대
- 영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49bp 상승(0.33% → 0.82%)
  - 마이너스 금리 도입 가능성 축소, 백신 접종 확대에 따른 코로나 불확실성 축소로 국채금리가 빠르게 상승
    - \* 영국 코로나 일일 신규 확진자수: 1.9일 68,053(고점) → 2.28일 8,523명
-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는 10bp 상승 (0.05% → 0.15%)
  - 백신 보급에 따른 국내외 경기 개선 기대, 일본은행의 수익률곡선관리 정책(10년물 금리 목표수준 0% 내외) 완화 가능성, 주요국의 채권 금리 오름세로 국채금리가 2.26일 0.153%로 2016.1월(0.198%) 이후 최고치를 기록

해외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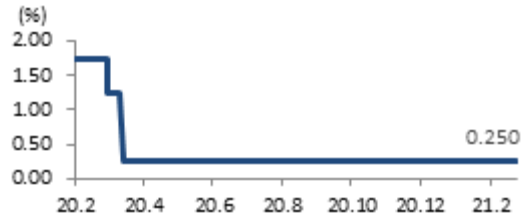
	단위	연간			분기				월간				
		2018	2019	2020	20.1/4	2/4	3/4	4/4	20.11월	12월	21.1월	2월	
미국	기준금리(기말)	%	2.500	1.750	0.250	0.250	0.250	0.250	0.250	0.250	0.250	0.250	0.250
	국채(10년, 기말)	%	2.684	1.918	0.913	0.670	0.656	0.684	0.913	0.839	0.913	1.066	1.405
독일	기준금리(기말)	%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국채(10년, 기말)	%	0.242	-0.185	-0.569	-0.471	-0.454	-0.522	-0.569	-0.571	-0.569	-0.518	-0.260
영국	기준금리(기말)	%	0.750	0.750	0.100	0.100	0.100	0.100	0.100	0.100	0.100	0.100	0.100
	국채(10년, 기말)	%	1.277	0.822	0.197	0.356	0.172	0.229	0.197	0.305	0.197	0.327	0.820
일본	기준금리(기말)	%	-0.100	-0.100	-0.100	-0.100	-0.100	-0.100	-0.100	-0.100	-0.100	-0.100	-0.100
	국채(10년, 기말)	%	-0.003	-0.028	0.026	0.026	0.035	0.026	0.026	0.031	0.026	0.050	0.153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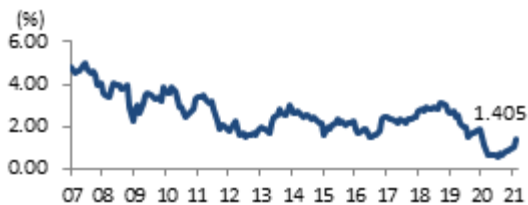
연준 기준금리(월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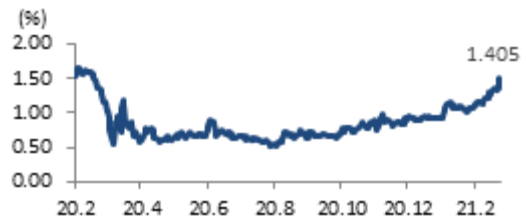
연준 기준금리(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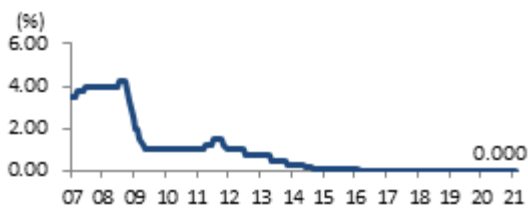
미국 국채 10년물(월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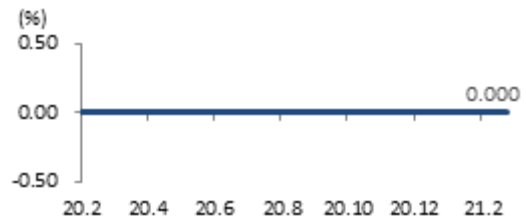
미국 국채 10년물(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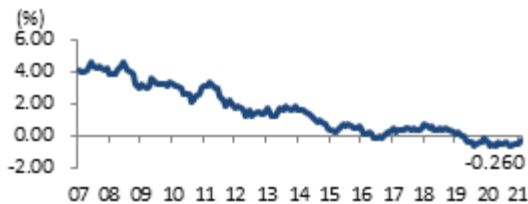
ECB 기준금리(월간)



ECB 기준금리(일간)



독일 국채 10년물(월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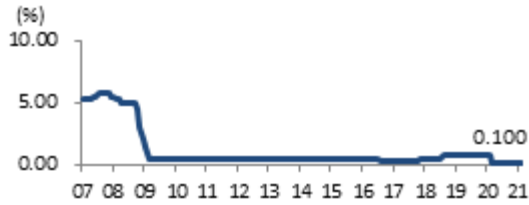


독일 국채 10년물(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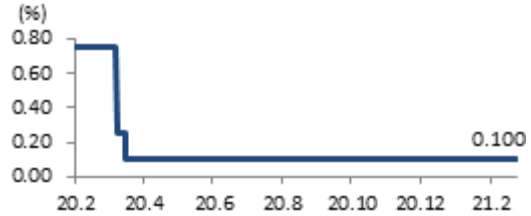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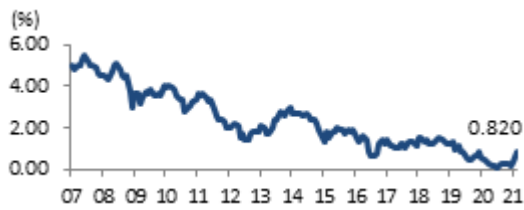
BOE 기준금리(월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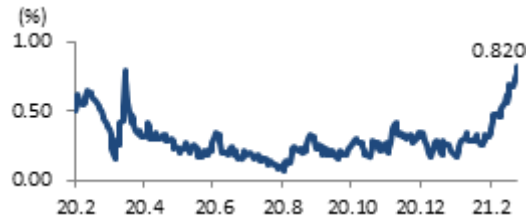
BOE 기준금리(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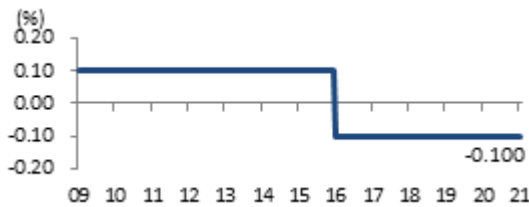
영국 국채 10년물(월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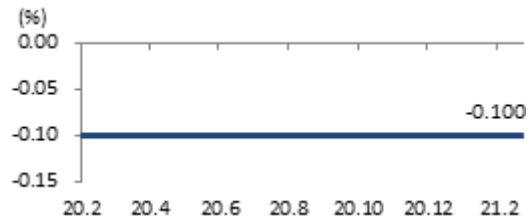
영국 국채 10년물(일간)



BOJ 기준금리(월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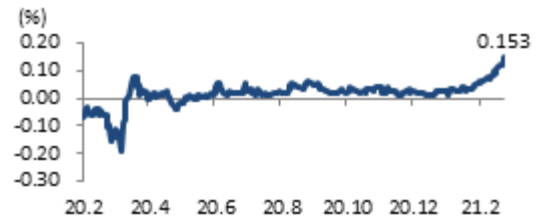
BOJ 기준금리(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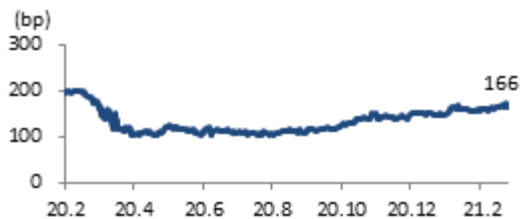
일본 국채 10년물(월간)



일본 국채 10년물(일간)



미국·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차(일간)



미국·일본 국채 10년물 금리차(일간)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붙임3**

**2월중 환율 동향**

■ **원/달러 환율은 전월말대비 0.4% 상승(원화 약세, 1월 1,119 → 2월 1,124)**

- 바이든 행정부의 부양책(1.9조달러 규모) 통과 기대,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로 2.16일 1,100원까지 하락했던 원/달러 환율은 미국 국채금리 급등과 국내 증시에서의 외국인 순매도 영향으로 상승 마감
  - \* 달러인덱스: 1.29일 90.6 → 2.4일 91.5 → 2.26일 90.9
  - \*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조원): 2020.12월 -1.8 → 2021.1월 -5.2 → 2월 -2.0

■ **위안/달러 환율은 0.7% 상승(위안화 약세, 6.43 → 6.47)**

- 바이든 대통령의 중국 인권문제 언급,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 제한 검토 등 미·중 갈등 재현 우려로 상승했으나, 중국의 유동성 회수에 따른 긴축 전환 가능성과 견조한 경기회복세가 상승폭을 제한

■ **엔/달러 환율은 1.8% 상승(엔화 약세, 104.7 → 106.6)**

- 인플레이션 기대로 미국 국채금리가 가파르게 오름세를 보임에 따라 미-일간 금리차 확대에 엔화에 약세압력이 가중
  - \* 미국-일본 국채 금리차(10년물, bp): 12월말 89 → 1월말 102 → 2월말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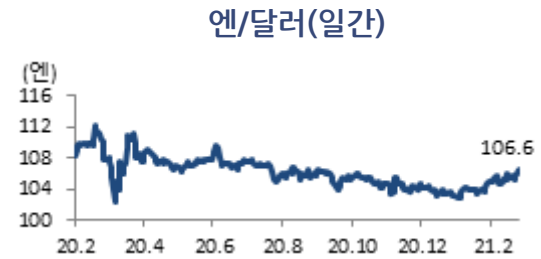
■ **달러/유로 환율은 0.5% 하락(유로화 약세, 1월 1.214 → 2월 1.208)**

- 백신 보급에 따른 경제 정상화 기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지역봉쇄 영향으로 유로화가 약세를 시현
  - \* 2월 유로존 제조업 PMI: 2020.12월 55.2 → 2021.1월 54.8 → 2월 57.9

**주요 환율**

	연간			분기				월간			
	2018	2019	2020	20.1/4	2/4	3/4	4/4	20.11월	12월	21.1월	2월
원/달러(기말)	1,111	1,156	1,087	1,219	1,203	1,170	1,087	1,106	1,087	1,119	1,124
위안/달러(기말)	6.88	6.96	6.53	7.08	7.07	6.79	6.53	6.58	6.53	6.43	6.47
엔/달러(기말)	110.0	108.5	103.0	108.6	107.7	105.7	103.0	104.0	103.0	104.7	106.6
달러/유로(기말)	1.145	1.122	1.228	1.095	1.121	1.171	1.228	1.199	1.228	1.214	1.208
달러지수(기말)	96.2	96.4	89.9	99.0	97.4	93.9	89.9	91.9	89.9	90.6	90.9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붙임4

## 2월중 주가지수 동향

## ■ KOSPI 지수는 전월말 대비 1.2% 상승(1월 2,976 → 2월 3,013)

- 백신 보급에 따른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 주요국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에도 불구하고, 채권 금리 급등, 개인투자자의 매수세 둔화로 주가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주가지수가 소폭 상승 마감
  - \* 2월 중 주체별 코스피 순매수(조원): 개인 +8.4, 외국인 -2.0, 기관 -6.4
  - \* 투자자 예탁금(조원): 2019.12월말 65.6 → 2020.1월말 68.0 → 2월말 63.9
- 국내 은행주는 9.2% 상승(코스피 대비 7.9%p 초과 상승)
  - 시중금리 오름세에 따른 수익성 개선 기대와 외국인 매수세 지속으로 하나금융(+13.5%), 우리금융(+8.9%), KB금융(+8.7%), 신한금융(+7.5%)이 모두 상승
  - \* 2월중 외국인 순매수(억원): 신한 1,040, KB 555, 하나 417, 우리 14
- 글로벌 Top 50 은행주는 11.0% 상승(아시아 Top 10 은행주는 11.3% 오름)

## ■ KOSDAQ 지수는 1.6% 하락(929 → 914)

- 수출 호조에 따른 기업실적 개선 기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기업들의 백신·치료제 개발 성과로 국내 바이오·제약 업종의 신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둔화되고, 금리 상승으로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가 약화되어 주가지수가 하락
  - \* 2월 중 주체별 코스닥 순매수(조원): 개인 +1.1, 외국인 0.0, 기관 -1.1

## ■ 선진국(MSCI DM)과 신흥국(MSCI EM) 증시는 각각 2.5%, 0.7% 상승

- 일본(+4.7%), 유럽(+4.5%), 미국(+2.6%), 중국(+0.7) 증시가 오름세

## ■ S&amp;P500 지수는 2.6% 상승(3,714 → 3,8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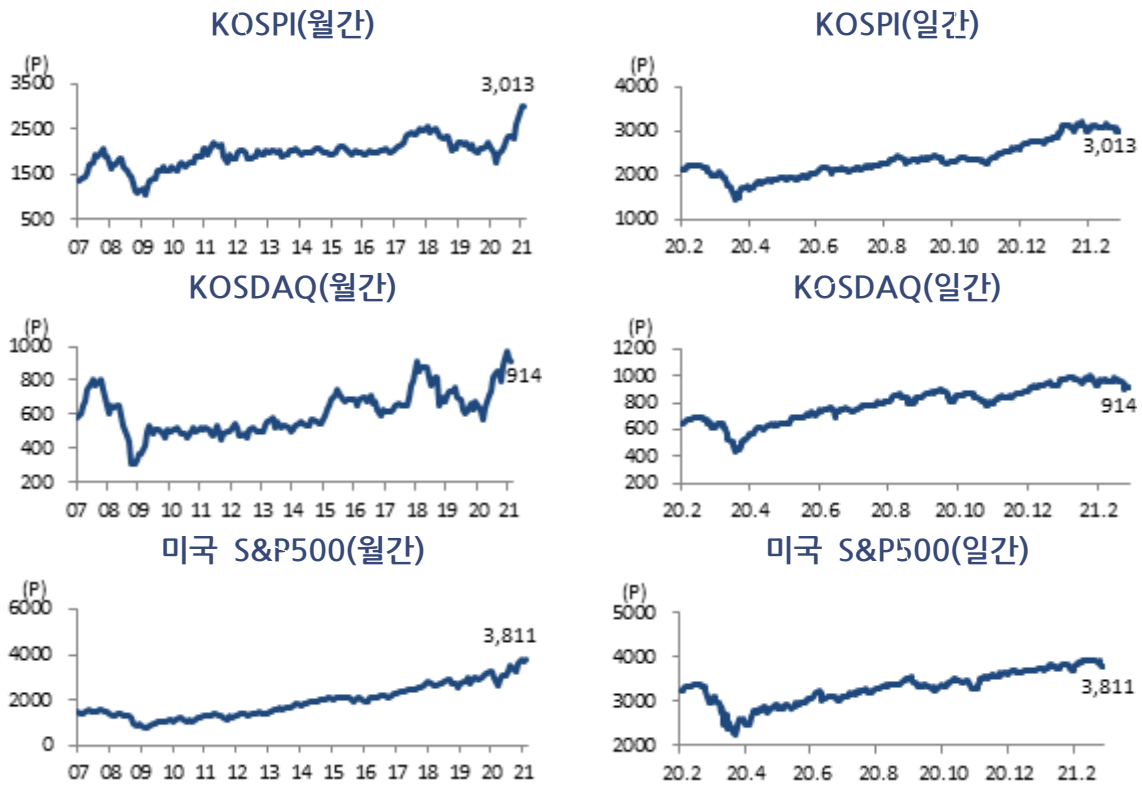
- 부양책 통과 가시화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로 사상 최고치(2.12일 3,935)를 경신했던 주가지수는 채권 금리 급등으로 기술주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축소



주요 주가

		연간			분기				월간			
		2018	2019	2020	20.1/4	2/4	3/4	4/4	20.11월	12월	21.1월	2월
국내 증시	KOSPI	2,041	2,198	2,873	1,755	2,108	2,328	2,873	2,591	2,873	2,976	3,013
	KOSDAQ	676	670	968	569	738	848	968	886	968	929	914
해외 증시	(선진국)MSCI DM	1,884	2,358	2,690	1,853	2,202	2,367	2,690	2,583	2,690	2,662	2,727
	(신흥국)MSCI EM	966	1,115	1,291	849	995	1,082	1,291	1,205	1,291	1,330	1,339
	(미국)S&P500	2,507	3,231	3,756	2,585	3,100	3,363	3,756	3,622	3,756	3,714	3,811
	(일본)Nikkei225	20,015	23,657	27,444	18,917	22,288	23,185	27,444	26,434	27,444	27,663	28,966
	(유럽)Eurostoxx50	3,001	3,745	3,553	2,787	3,234	3,194	3,553	3,493	3,553	3,481	3,636
	(중국)상해종합지수	2,494	3,050	3,473	2,750	2,985	3,218	3,473	3,392	3,473	3,483	3,509
은행 주	우리금융	n.a.	11,600	9,730	7,650	8,810	8,580	9,730	9,830	9,730	8,800	9,580
	KB금융	46,500	47,650	43,400	34,550	33,950	37,550	43,400	45,350	43,400	40,300	43,800
	신한금융	39,600	43,350	32,050	28,600	28,750	27,600	32,050	32,200	32,050	30,650	32,950
	하나금융	36,250	36,900	34,500	23,100	27,000	28,100	34,500	33,850	34,500	32,650	37,050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자료: Bloomberg

\* 동 보고서는 연구원들이 신뢰할만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배포되는 조사분석 자료입니다. 동 보고서에 수록된 정보(시황에 대한 예측 또는 금융시장지표 전망 등)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 시에는 개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